

조선시대 羅州의 인쇄문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inting of Naju in the Chosun dynasty

안 현 주(Hyeonju Ahn)**

〈 목 차 〉

I. 緒論	3.2 간행서적과 서지적 특성
II. 나주의 역사 및 인쇄문화	IV. 조선 후기(임진왜란 이후-1910년)
2.1 역사	4.1 책판의 기록
2.2 인쇄문화	4.2 간행서적과 서지적 특성
III. 조선 전기(조선 개국 - 임진왜란)	V. 結論
3.1 책판의 기록	

초 록

이 연구는 현재의 전라남도 지역의 인쇄문화를 파악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일찍이 고려시대부터 서적을 간행했던 나주에서는 조선시대에 89종이 간행되었다. 조선시대 중종조 이후부터 서적간행이 활발해졌고 특히 16세기와 19세기에 간행활동이 두드러졌다. 조선 전기에는 유가류, 후기에는 별집류와 계보류의 서적이 많이 간행되었다. 조선전기의 간행의 주체는 왕명에 의한 경우와 관찰사나 목사 등 지방관의 의지, 개인 등이었는데 후기로 갈수록 개인이나 문중이 문집과 족보를 발간하는 경향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전기에는 대부분 목판본으로 간행하였으나 후기에는 목활자의 사용이 점점 대중화되었다.

키워드: 나주, 금성, 남평, 인쇄, 책판목록, 목판본, 목활자본

ABSTRACT

This study i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printing culture in current Chollanamdo province. Searching the publication in Naju during the Chosun dynasty, 89 titles were found, where publication had begun from early Koryo dynasty. Active Publication was initiated from the era of King Jungjong and many books were published in 16th and 19th centuries. Many Confucian books were published dominantly in the first half of the Chosun dynasty, and collective literature and genealogical records in the later half. In the first half of the dynasty, most of books were published by the order of a king, the officer of province, or an individual, and, in the later half, increasingly collective literature and genealogical records were published by an individual or a family. Also woodblocks were used in the first half of the dynasty, wooden types in the later half.

Keywords: Naju, Kumsung, Nampyung, Printing, Catalogue of woodblocks, Wood prints wood type prints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5C-H00010)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강사(treenbird@hanmail.net)
• 접수일: 2012년 2월 25일 • 최초심사일: 2012년 2월 29일 • 최종심사일: 2012년 3월 23일

I. 緒論

한 지역의 인쇄문화는 그 지역의 문화와 그 곳에 거주하는 이들의 지성과 감성의 지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시대의 교육과 교양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그들의 사상과 고유한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한다. 근래에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조상들이 이루어낸 문화를 복원하고 보존하려는 노력도 증가하고 있다.

羅州는 마한시대부터 문화의 중심지였고 고려시대에 나주목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전주, 남원과 더불어 전라도의 중심지였다. 그동안 많은 역사적 변천을 겪어 오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영산강 일대의 선사시대 유적과 유물은 나주의 오랜 역사를 보여준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신숙주, 최부, 박순, 임제, 임영, 나세찬 등 많은 문인과 학자들을 배출한 고장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전라도의 중심지 역할을 한 지역이지만 나주의 인쇄문화를 다룬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지방의 인쇄문화를 다룬 연구¹⁾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조선시대 전라도 지역이나 감영의 책판 및 전적문화를 다룬 연구²⁾들이 늘어나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직 연구되지 않은 나주 지역의 인쇄문화를 조명하고 그 경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나주 지역에서 간행된 서적 중 현전본과 책판목록을 통하여 조사하고, 간행된 서적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현 전라남도의 군 단위지역의 인쇄문화를 연구하는 일환으로 나주에 관한 연구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이는 호남학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조선시대 전라도 출판문화의 면모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나주 지역이라 함은 조선시대 남평현을 포함한 나주를 의미하며, 간행 서적의 시기적 범위는 조선시대 초기부터 일제강점기 이전인 1910년으로 국한하였다. 나주 지역의 인쇄문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조선시대를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서술하고자 한다. 임진왜란 이전과 이후의 책판목록에 수록된 書名들에서 급격한 변화가 보이기 때문이다.

- 1) 박문열, “충청지역의 출판문화에 관한 연구,” 국제문화연구, 15권(1997), pp.155-183.
남권희, “제주도 간행의 서적과 기록류,” 古印刷文化, 제8집(2001), pp.219-252.
배현숙, “宣祖初 地方 冊板考,” 書誌學研究, 제25집(2003. 6), pp.299-340.
윤상기, “경남 함양군의 서원판본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32집(2005. 12), pp.237-271.
윤봉택·노기춘, “제주목에서 개간된 17세기 책판 연구,” 書誌學研究, 제34집(2006. 9), pp.251-271.
임기영, “청도의 전적 인쇄 문화 연구,” 書誌學研究, 제50집(2011. 12), pp.113-160.
- 2) 권희승, 湖南坊刻本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81).
송일기, 全南 書院의 木板(광주 : 전남대학교문헌정보연구소, 1998).
이혜경, 朝鮮朝 坊刻本の 書誌學的 研究(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99).
옥영정, 湖南地方 木活字本 研究(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2).
강혜영, “남원지역 인쇄문화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32집(2005. 12), pp.5-34.
최지선, 조선시대 호남관찰영본에 관한 서지적 연구(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7).
김성수, “충청감영(忠淸監營)과 청주목(淸州牧)의 간행도서에 관한 분석,” 書誌學研究, 제45집(2010. 6), pp.33-63.
안현주,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전 전라도의 서적출판에 관한 고찰,” 書誌學研究, 제46집(2010. 9), pp.159-198.
옥영정, “조선시대 完營의 인쇄문화에 관한 고찰,” 書誌學研究, 제50집(2011. 12), pp.433-470.

II. 나주의 역사 및 인쇄문화

2.1 역사

나주는 '천년 목사골'이라고 불린다. 고려로부터 조선조 말까지 천년 동안 전라도의 중심도시였다. 구석기시대부터 역사가 시작되어 삼국시대에는 백제에 속하기 전에 馬韓의 일부분이었다. 마한의 상징적 유적인 웅관고분이 반남면과 다시면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다. 백제 때에는 發羅 또는 通義라 하였고, 신라 때 錦山郡 또는 錦城이라고 했으며, 궁예가 고려 태조를 명하여 해군을 이끌고 攻取한 뒤에 지금의 지명인 羅州로 고쳤다. 나주가 역사의 전면에 두각을 나타낸 것은 고려시대이다. 영산강을 중심으로 서남해안 일대의 중심세력을 형성하였던 나주의 호족세력은 王建을 도와 고려의 건국을 이루었다.³⁾ 이 과정에서 왕건은 羅州吳氏와 인연을 맺었고 또한 아들을 낳아 왕위를 이었다. 이들이 장화왕후와 고려 2대왕 혜종이다. 고려 현종 9년(1018)에 이 고을을 승격하여 牧을 삼으니 조선에서도 이를 따랐다. 거란의 2차 침입때에는 현종이 나주로 피진와서 10여일을 머무르며 지금의 심향사(금성산기슭)에서 연등회와 팔관회를 개최하였다. 조선조 인조 23년(1645)에 목사 李更生이 惡吏에게 살해된 사건으로 인해 縣으로 강등되었다가 효종 6년(1655)에 목으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이듬해에 목사 鄭基豊이 位牌를 盜破한 사건으로 현으로 다시 강등되었다가 현종 5년(1664)에 목으로 승격되었다.⁴⁾ 조선 후기 나주목은 38개면과 현 신안군 일대 30여개 이상의 島嶼를 관할하는 곳으로 많은 호구와 전결을 보유한 큰 고을이었다. 나주는 약 천년간 306명의 목사가 부임하여 다스렸다. 고종 32년(1895) 8도를 23관찰부로 개편할 때 나주관찰부가 되어 관찰부청이 되고 나주목은 나주군이 되었다. 1914년 나주군과 남평군을 합쳐 나주군이 되었고 광복이후 나주군 내 3개면이 광산군으로 이속되었으며 1981년 나주읍과 영산포읍을 합쳐 금성시로 승격되었다. 1986년 나주시로 개칭하고 1995년 나주시와 나주군을 합쳐 통합나주시(都農複合都市)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南平은 원래 백제의 未冬夫里縣이었다가 신라때에 玄雄으로 고쳐 무주의 현으로 삼았으며 고려 때에 남평으로 고쳐 군으로 삼아 나주에 소속하도록 하였다.⁵⁾

노령산맥이 서남쪽으로 뻗어 내려와 나주에 이르러 금성산을 이루고 주변에 영산강이 흐르며 나주평야가 그 안에 자리하여 예로부터 호남의 곡창지대로 교통·군사·행정의 중심이었던 이 지역은 임진왜란 이후 정여립의 반란으로 비화된 기축옥사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나주는 고려시대부터 氏族的 결합이 누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조선시대 이전부터 이미 土姓으로서 나주의 지배층을 이루었던 성씨는 錦城 羅씨, 羅州 羅씨, 羅州 吳씨, 羅州 鄭씨 등 나주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들

3) 羅州牧鄕土文化硏究會, 牧鄕 IV(羅州牧鄕土文化硏究會, 2010), pp.106-107.

4) 錦城邑誌(1897), 建置沿革條

5) 羅州牧鄕土文化硏究會, 『羅州牧邑誌』(羅州牧鄕土文化硏究會, 1993), p.173.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3권 제1호)

과 潘南 박씨 등이었으며, 이들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士族化하여 그 세력을 유지해왔다.⁶⁾ 또한 영조조의 이인좌의 난이나 서원조직을 둘러싼 남인과 노론 세력간의 끈질긴 경쟁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조선 후기에 상인·향리세력의 성장이 활발하였고 구한말 보수와 개혁의 다양한 양상이 펼쳐지기도 하였다. 동학군들에게 대항하여 읍성을 지켰으며 단발령사건·한말호남의병항쟁·광주학생독립운동·나주농업보습학교생들의 만세시위사건 등 역사적 사건의 중심지이기도 하였다.⁷⁾

2.2 인쇄문화

나주는 고려시대부터 '牧'으로서 전라도 지방을 통치할 때 주요 거점도시였고, 조선시대에 문과 급제자는 남원 다음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선시대에 세워진 나주지역의 書院과 祠宇는 임진왜란 이전에는 2곳(景賢書院, 錦江祠), 임진왜란 이후에는 22곳⁸⁾이나 될 만큼 학자와 의병장을 많이 배출한 고장이다.

나주는 300여명의 목사가 치리하던 고장이었고 많은 학자들이 살던 곳이며 종이의 생산지였다. 지금의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닥나무를 재배한 곳이 많았다. 나주, 진도, 영암, 영광, 강진, 남평, 구례, 곡성, 광양, 담양, 장흥, 광주, 순천, 보성, 화순 등에서 닥나무를 재배하였다.⁹⁾ 나주와 남평은 종이의 생산지이기도 하다.¹⁰⁾ 조선전기에 나주에는 10명의 紙匠이 있었고 후기에는 1명의 紙物匠과 1명의 都紙匠이 있었다.¹¹⁾

나주에서 간행된 現傳本 중 가장 오래된 간본은 國寶 第 291號(1997.1.1 指定)로 지정된 『龍龕手鏡』이다. 僧 行均이 찬집한 목판본인데 卷4의 末尾에 “羅州牧官雕刻四卷入九十三張, 司錄掌書記借良縣令權得齡”라고 되어 있어서 나주목에서 새긴 것은 분명하나 간행년을 알 수 없다. 판식으로 보아 12세기-13세기로 추정하는데,¹²⁾ 고려시대 나주목의 판각술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현재 고려대학교(육당 貴 1 463018717)에서 소장하고 있다.

나주지역은 현전하는 인본으로 볼 때 호남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부터 목활자인쇄가 이루어진 곳이며, 남원지방과 함께 호남지방 목활자 인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 지역이다.¹³⁾ 조선후기에는 목활자의 사용이 더욱 대중화되어 나주 지역에서는 목활자로 서적을 많이 간행했음을 볼 수 있다.

6) 정승모, “書院·祠宇 및 鄉校 組織과 地域社會體系(下),” 泰東古典研究, 제5권(1989), p.139.

7) 나주시청 홈페이지, <<http://tour.naju.go.kr/home/tour/history>>, [인용 2012. 2. 5].

8) 목포대박물관 편, 全南의 書院·祠宇Ⅱ(전라남도, 1990), pp.349-351.

9) 『世宗實錄』 地理誌.

10) 『諸道冊板錄』 卷末.

11) 김삼기, 조선후기 製紙手工業 연구(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3), pp.16-48.

12) 천혜봉, 한국전적인쇄사(서울 : 범우사, 1990), pp.132-137.

13) 옥영정, 湖南地方 木活字本 研究(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2), p.56.

또한 나주는 전주 인근 지역과 더불어 전라도의 주요한 방각본 간행처였다. 나주에서 펴낸 방각본을 錦城版이라고 한다. 상업용 서적인 방각본은 그만큼 민간의 수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존본은 많지 않다.

Ⅲ. 조선 전기(조선 개국 - 임진왜란)

나주 지역의 인쇄문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책판목록의 내용과 현존본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책판목록에 나타난 정보는 대체로 서명, 인출시 필요한 종이의 수량 정도이기 때문에 나주의 언제, 어느 곳에서 간행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현존본의 간기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시간적으로는 조선전기와 후기로 나누었다. 먼저 책판의 기록을 통해 나주와 남평의 책판소장상황을 살피고, 현존본의 간행기록과 문헌을 통해서 나주의 서적 간행의 특성을 기술하고자 한다.

3.1 책판의 기록

조선 전기 호남지역의 서적출판에 관해 알 수 있는 기록은 『攷事撮要』가 유일하다. 『攷事撮要』는 조선시대에 관리나 재야의 선비에게 아주 긴요한 日用的 類書였다. 명종 9년(1554) 魚叔權의 原撰 이후 영조 47년(1771) 서명응에 의해서 그 내용을 대폭 수정하여 『攷事新書』로 편찬하기까지 무려 12차에 걸쳐 續撰과 改修가 이루어졌다.¹⁴⁾ 조선 最古의 책판목록이라 할 수 있는 이 책판목록은 『攷事撮要』의 八道程途 안에 수록되어 있다. 임진왜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개수되어 간행되었는데, 본고에서는 선조 1년(1568) 을해자본 『攷事撮要』와 선조 18년(1585)년 목판본 『攷事撮要』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¹⁵⁾

선조 1년(1568) 을해자본 『攷事撮要』(魚叔權 編)에 수록된 羅州地域의 간본은 다음과 같다.

羅州(18종): 虛白堂集, 活人心方, 文章軌範, 雪菴書, 蒙訓書, 周易, 宋鑑, 浮休子談論, 雅音會編, 大平閑話, 村談解頤, 聯珠詩格, 呂氏鄉約, 銅人脉簇圖, 東垣十書, 黃山谷集, 雪菴集, 蒙古書

南平(3종): 書傳, 三綱行實, 續三綱行實

14) 金致雨, 『攷事撮要의 書誌的 研究』(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72), pp.2-16.

15) 선조 9년본 번각본 『攷事撮要』가 있으나, 책판목록에서의 변화는 평양, 해주, 밀양의 책판의 증감만이 있고 나주와 남평은 선조 1년본과 같으므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3권 제1호)

선조 18년(1585) 목판본 『攷事撮要』(許筠 續撰)에 수록된 羅州地域의 간본은 다음과 같다.
(* : 추가된 책판)

羅州(28종): 虛白堂集, 活人心方, 文章軌範, 雪菴書, 蒙訓書, 周易, 宋鑑, 浮休子談論, 雅音會編, 大平閑話, 村談解頤, 聯珠詩格, 呂氏鄉約, 銅人脉簇圖, 東垣十書, 黃山古集, 雪菴集, 蒙古書, 儀禮圖*, 李白詩*

(鄉校): 禮輯*, 自省錄*, 溪山雜詠*, 孝經*, 錦南集*, 岳飛書*, 月軒集*, 屏風書*

南平(3종): 書傳, 三綱行實, 續三綱行實

선조 1년본의 종수는 나주와 남평을 합하여 21종이며, 선조 18년본에는 31종이 수록되어 있다. 17년 사이에 10종이 늘어났는데, 추가된 10종 중 8종의 책판을 나주향교에서 책판을 소장하고 있다. 남평현에서는 그 사이 아무 변화없이 3종의 책판을 소장하고 있다.

3.2 간행서적과 서지적 특성

책판목록의 조사와 현존본 조사를 바탕으로 간행서적에 대한 서목을 작성하였다. 또한 간본을 수록한 고서목록과 문집, 『조선왕조실록』, 기타 문헌에 나타나는 간행기록 등을 통해 나주지역에서 간행된 서적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조에 들어와서 나주에서 서적을 간행한 가장 이른 기록은 세조 8년(1462)에 간행된 『大方廣佛華嚴經合論』의 일부를 전주와 나주에서 雕造한 것이다.¹⁶⁾ 『화엄경합론』은 120권의 巨帙이기 때문에 간경도감에서 전주와 나주에서 나누어 판각하게 한 것이다.

또한 간행기록이 나주라고 명시되지 않으나 여러 읍이 함께 간행한 사례도 있다. 『五先生禮說分類』는 조선중기 학자이며 문신인 鄭述(1543-1620)가 16년에 걸쳐 북송 및 남송의 유학자 程顥·程頤·司馬光·張載·朱熹 등 다섯 선생의 예설을 모아 관혼상제와 잡례 등을 분류한 禮書이다. 그의 문인인 李潤雨의 발문에 의하면, 1628년 담양부사에 부임하여 이성구와 간행을 도모하였으나 실행되지 못 하였다. 이듬해 나주목사 辛啓榮, 광산현감 李惟達, 순천현감 姜大進, 무안현감 金榛과 列邑의 뜻을 같이 하는 守宰에게 通諭할 것을 도모하고 板木을 나누어 上梓하였고, 관찰사 權泰一이 총괄하였다고 한다.¹⁷⁾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나주에서 간행된 현전본으로 가장 간행기록이 이른 판본에는 『大平閑話』가 있다. 『고사촬요』(선조 1년본과 18년본)의 나주조에 수록된 『大平閑話』는 『太平閑話滑稽傳』

16) 윤병태 편, 韓國書誌年表(서울 : 도서관협회, 1972), p.27.

17) 五先生禮說分類, 跋文.

으로 추정되는데, 이 책은 나주조에만 수록되어 있다. 현재 목판본 『太平閑話滑稽傳』은 고려대에 소장(만송 貴 372)되어 있는데, 徐居正(1420~1488)이 편찬하였으며, 고려대 소장본의 版心題는 『閑話』이다. ‘成化紀元之十八年(1482) … 梁誠之序’라는 序가 있으며, 강희맹이 쓴 ‘龍集壬寅(1482) … 姜希孟景醇書于私淑堂’이라는 滑稽傳敍가 있다.

『呂氏鄉約(朱子增損呂氏鄉約)』은 주희가 여씨 4형제의 『呂氏鄉約』을 補撰하고, 김안국이 諺解한 것이다. 성암고서박물관 소장본에는 “正德十三年戊寅九月日羅州開刊”이라는 간기가 있어서 중종 13년(1518) 9월에 나주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종은 그해 4월에 김정국의 청에 의해 학교와 풍속을 교화시킬 서적들을 널리 반포하라고 전교하였다.¹⁸⁾ 왕명에 의해 서적을 보급시킨 예라 할 수 있다.

임진왜란 이전 16세기까지는 전국 각지에서 목활자를 만들어 서책을 인행하였고 서울을 비롯한 지방의 주요도시나 서원 또는 개인이 활자를 빌리거나 만들어서 책을 인출하였다. 『性理大全書節要』는 ‘錦城字’라고 불리는 목활자로 찍은 인본인데, 중종 때의 관리이자 학자인 김정국이 1538년 여름에 호남관찰사로 부임해서 그곳 都事 金晦伯과 함께 의논하여 기존의 목활자에 새로 새겨 보충한 다음 800부를 찍었다.¹⁹⁾ 이 책은 조선시대 유학자의 필독서인 『성리대전서』의 번다한 내용을 압축시킨 점에서 실용적이고, 편자가 목활자로 찍어 보급시킨 初印完帙本이며 임진왜란 이전의 地方官牒本이란 점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²⁰⁾ 유희춘이 편찬한 『續蒙求分註』도 같은 활자로 인쇄되었으나, 정확한 간행지역을 아직 알 수 없다.

『月軒集』은 조선 중기의 문인이었던 丁壽崗(1454~1527)의 문집이다. 계명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정수강의 아들 玉亨이 중종 37년(1542)년에 편집하여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옥형의 발문이 들어 있다. 이후 후손들에 의하여 숙종 28년(1702)에 重刊되고, 영조 49년(1773)년에 三刊되었다. 『월헌집』은 나주 지역에서 간행된 문집 중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것이다.

『고사촬요』의 나주조에 수록된 『活人心方』은 『新刊京本活人心法』과 동일한 책으로 추정한다. 『新刊京本活人心法』은 현재 중국북경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에는 그 영인본이 마이크로필름(M古-1996-5)으로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은 동의보감이 편집(1597)되기 50여년 전에 중국인이 편찬했으나, 조선에서 安珪가 1541년에 발문을 썼고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²¹⁾ 1540(중종 35)년 7월에 전라도의 각 지역에 전염병이 크게 번져 죽는 자가 많아 예조에서 약재를 보내 구할하라는 임금의 전교가 있었다.²²⁾ 즉, 당시 전라도 관찰사였던 안현이 질병에서 백성을 구하려는 의도로 간행을 주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8) 『中宗實錄』, 13年 4月 1日條.

19) 천혜봉, 한국서지학(서울 : 민음사, 2006), p.429.

20) 천혜봉, 전게서, pp.429-431.

21) 한국고전적중합목록시스템 해제 <<http://www.nl.go.kr/korcis/>> [인용 2012. 2. 18].

22) 『中宗實錄』, 35年 7月 6日(乙未)條.

『朱子文錄』은 기대승(1527-1572)이 부친상을 당한 후 시묘살이하는 동안 『주자대전』을 읽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문장을 3권(상, 중, 하)으로 발췌 요약한 것이다. 31세(1557년)에 제자 송정황의 도움을 받아 편찬²³⁾하였는데 발문도 송정황이 썼다. 목활자본으로 간행되었고, 일본의 내각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錦南集』은 유희춘의 외조부인 최부의 문집이다. 전남대 소장본(OC4B1최47ㄱ v.1, 2, 4)에는 ‘隆慶辛未(1571) … 外孫 … 柳希春謹識’이라는 序와 ‘萬曆元年(1573) … 外孫 … 柳希春謹跋’라고 되어 있다. 목판본이며, 권4에 『漂海錄』이 실려 있다. 이 문집이 간행되기까지 3년여의 시간이 걸렸으며, 미암이 죽기 1년 전에 발문을 써서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鶴峰 金誠一은 선조 16년(1583) 8월부터 동왕 19년(1586) 10월까지 나주목사로 재임하였다. 그는 지역의 선비들과 합심하여 금성산 기슭에 나주의 최초의 서원인 대곡서원(나중에 경현서원으로 改稱)을 세우고 김광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이황 등을 제향하는 한편 선비들이 학문에 전념하도록 독려하고 많은 서적을 간행하였다. 선행연구²⁴⁾에 의하면, 퇴계의 제자인 그가 간행을 주도한 서적은 『退溪雜詠』, 『禮輯(鄉校禮輯)』, 『朱子書節要』, 『自省錄(退陶先生自省錄)』, 『儀禮圖』 등이다. 이 5종 중 『朱子書節要』는 책판목록에서 누락되어 있고 『儀禮圖』는 나주에 책판이 소장되어 있으며 나머지 3종은 나주향교에 책판을 소장하고 있는 곳으로 나타났다. 김성일은 1584년 겨울에 월천에게 올린 서한에서, 그 해 가을에 이미 『朱子書節要』를 간행하였고 다시 『儀禮圖』의 판각이 끝나간다고 말하고, 『溪山集』과 轉寫本 『鄉校禮輯』을 보내달라고 청하였다.²⁵⁾ 즉 나주의 『朱子書節要』는 1584년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禮輯(鄉校禮輯)』은 1585년에 나주에서 간행되었는데, ‘萬曆十三年乙酉(1585)錦城開刊’이라는 간기가 있는 초간본이 雪月堂 宗家에 光山金氏家藏으로 소장되어 있다.²⁶⁾ 『自省錄』은 『退陶先生自省錄』이라고도 한다. 계명대 소장본(181.153 이황ㄷ)은 1册(76張)이고, 목판본이며 ‘萬曆十三年乙酉(1585) … 羅州牧 開刊’이라는 간기가 있다. 『자성록』 책판은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나주에서 안동으로 책판이동이 있었기에 도산서원을 거쳐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에 수장되어 있다.²⁷⁾ 『溪山雜詠』은 퇴계 선생이 손수 쓴 시 가운데 퇴계 자신이 退溪라는 마을에 살면서 읊은 시만 뽑아 자필로 정리 해둔 책이다. ‘萬曆十三年乙酉(1585)錦城開刊’이라는 간기가 있는데 1585년 금성(나주)에서 개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충남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형태적 특징으로 보아 후쇄본이라 할 수 있다. 『儀禮圖』는 『周禮』, 『禮記』와 함께 三禮를 이루는 것 가운데 하나로 公卿士大夫가 지켜야 할 의례와 그 圖解를 수록한 것이다. 『儀禮圖』는 명나라 국자감에서 監生 五士들이 한 저술을 교정하여 1536년에

23) 고봉학술원 편저, 고봉 기대승 연구(대전: 도서출판 이화, 2009), p.224.

24) 안현주, 전개논문, pp.172-180.

25) 沈慶昊, “錦城開刊『溪山雜詠』과 庚子本『退溪文集』의 간행경위에 대한 일 고찰,” 書誌學報 제19호(1997), p.69.

26) 鶴峯金先生紀念事業會 편, 鶴峯의 學問과 救國活動(서울: 鶴峯金先生紀念事業會, 1993), p.196.

27) 손계영, “조선후기 책판의 간행공간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49집(2011. 9), p.34.

간행한 것을 우리나라에 들여 와 선조 13년(1580)에 경진자로 처음 간행하였다. 봉좌문고 소장본은 그것을 복각한 목판본이 전래된 것이다. '萬曆十三年乙酉(1585) ... 錦城開刊'이라는 간기가 있다.

조선 전기에 나주에서 간행되었다고 추정되는 서적의 목록을 <표 1>로 작성하였다. <표 1>을 살펴보면, 조선 전기에 나주에서는 주제별로 다양한 서적 35종을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경부(20%)에는 서류, 역류, 예류, 효경류, 소학류 등이 있고, 사부(8.57%)에는 정사류, 전기류 등이 있으며, 자부(45.71%)에는 유가류, 의가류, 역가류, 수록류, 예술류 등이 있고, 집부(25.71%)에는 총집류와 별집류 등이 있다. 자부에 속하는 서적이 가장 많고 그 중 유가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유가류의 경우 성리학으로 통치 이념을 삼은 국가적 정책의 반영과 향촌사회의 교화, 교육에 필요한 서적을 간행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의가류와 예술류도 그 다음으로 많은데 이는 질병과 서예에 대한 현실적 수요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간행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서적 18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6세기에 12종(75%)이 간행되었고, 종종 이후부터 서적간행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판종은 35종 중 33종이 목판본이고, 2종만이 목활자본이다. 나주 지역에서는 1538년에 간행된 『성리대전서절요』가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목활자본인데, 종종조 이후부터 목활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기에는 대부분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는데, 그 중에는 활자본 번각본이나 중국에서 들여 온 명본을 번각한 것도 있다.

현전본을 통해 살펴 본 나주 지역의 간행의 주체나 동기는 왕명에 의해 서적을 반포하는 경우와 관찰사나 목사 등 지방의 관리들이 필요에 의해, 그리고 개인이 조상의 문집이나 족보 등을 간행하는 경우로 확인이 된다.

<표 1> 조선 전기 나주 간행 추정 서적목록

分類	書名	編著者	刊行處	板種	刊行年	所藏處	
經	書類	書傳	南平	木板本			
	易類	周易	羅州	木板本			
	禮類	禮輯(鄉校禮輯)	屠義英(明)	羅州鄉校	木板本	宣祖18(1585)	光山金氏宗家
	禮類	儀禮圖	楊復(宋)	羅州	木板本	宣祖18(1585)	봉좌문고
	孝經類	孝經		羅州鄉校	木板本		
	小學類	雅音會編	康麟(明)	羅州	木板本		청분실서목
史	正史類	宋鑑(宋鑑疏論)	羅州	木板本			
	傳記類	三綱行實	偈循 等	南平	木板本	中宗-宣祖	청분실서목
	傳記類	續三綱行實	申用漑 等	南平	木板本	中宗-宣祖	
子	儒家類	蒙訓書	羅州	木板本			
	儒家類	浮休子談論	成倪	羅州	木板本	中宗-明宗	청분실서목
	儒家類	性理大全暑節要	羅州	木活字本	中宗33(1538)	성암, 연세대	

	儒家類	聖學十圖	李滉	羅州	木板本	宣祖18(1585)	
	儒家類	呂氏鄉約	朱熹(宋) 編 金安國 診解	羅州	木板本	中宗13(1518)	성암문고
	儒家類	自省錄	李滉	羅州鄉校	木板本	宣祖18(1585)	계명대
	儒家類	朱子文錄	奇大升	羅州	木活字本	明宗12(1557) 跋	내각문고
	儒家類	朱子書節要	李滉	羅州	木板本	宣祖17(1584)	전남대, 학봉집
	醫家類	東垣十書	光澤王(明)	羅州	木板本		
	醫家類	銅人脈簇圖 (銅人經)	王惟一(宋)	羅州	木板本		
	醫家類	活人心方	朱權(明)	羅州	木板本	中宗36(1541) 跋	국립중앙
	譯家類	蒙古書		羅州	木板本		
	隨錄類	太平閑話	徐居正	羅州	木板本	成宗13(1482) 序	고려대
	隨錄類	村談解頤	姜希孟	羅州	木板本		
	藝術類	屏風書		羅州鄉校	木板本		
	藝術類	雪菴書 (雪菴書帖)	李溥光(元)	羅州	木板本		
	藝術類	岳飛書	岳飛(宋)	羅州鄉校	木板本		
集	總集類	文章軌範	謝枋得(宋)	羅州	木板本		
	總集類	聯珠詩格	于濟(元) 等	羅州	木板本	燕山君-中宗	청분실서목
	別集類	溪山雜詠	李滉	羅州鄉校	木板本	宣祖18(1585)	충남대
	別集類	錦南集	崔溥	羅州鄉校	木板本	宣祖6(1573) 跋	전남대
	別集類	雪菴集		羅州	木板本		
	別集類	月軒集	丁壽岡	羅州鄉校	木板本	中宗37(1542)	계명대
	別集類	李白詩	李白(唐)	羅州	木板本		
	別集類	虛白堂集	成倪	羅州	木板本	中宗-宣祖	청분실서목
	別集類	黃山谷集	黃庭堅(宋)	羅州	木板本		청분실서목

IV. 조선 후기(임진왜란 이후 - 1910년)

4.1 책판의 기록

冊板目錄은 그 지방의 책판 소장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이다. 조선 후기에 羅州와 南平의 책판을 수록하고 있는 책판목록²⁸⁾에는 「冊板置簿冊」, 「三南所藏冊板」, 「諸道冊板錄」, 「完營冊板目錄」, 「嶺湖列邑所在冊板目錄」, 「各道冊板目錄」, 「古冊板有處攷」, 「鏤板考」 「各

28) 정형우, 윤병태 편, 韓國의 冊板目錄(서울 : 보경문화사, 1995).

道册板目錄」 등이 있다.

「册板置簿册」은 7개도의 책판을 수록하고 있는데, 영조 16년(1740)경에 작성된 것이다. 상단에 서명을 기록하고 하단에는 인출시 필요한 종이의 수량을 기록하였다. 나주의 책판은 전주에 이어 두 번째로 기록하고 있는데, 「林白湖集」, 「或問大學」, 「遲川集」, 「中庸」, 「心經諺解」, 「三韻通考」, 「許眉叟集」이 수록되었다. 또한 남평조에는 「中庸」, 「中庸諺解」, 「兵衛森」, 「洪武正」, 「野言」, 「歸去來辭」, 「論語大全」, 「大學」, 「大學諺解」이 수록되었다.

「三南所藏册板」은 필사본으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즉 三南에 소장된 책판을 기록한 것인데 영조 19년(1743)경에 편찬된 것이다. 상단에는 책판의 서명을 적고, 하단에는 인출 시 필요한 종이의 수량과 책판의 剝缺 상태를 기록하였다. 남평의 「兵衛森」 1종만 기록되어 있다. 나주조와 광주조가 생략되었거나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諸道册板錄」은 영조 26년(1750)경에 작성된 것으로,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함경도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판을 수록하였다. 인출시 필요한 종이의 수량이 기록되어 있고, 전라도 책판기록 말미에는 종이의 생산지와 각수들의 賃金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전라도에서 종이를 생산한 곳은 순창, 담양, 창평, 남원, 무장, 옥과, 구례, 순천, 나주, 남평, 동북, 임실, 장흥, 운봉 등이다. 여기에 수록된 나주의 책판은 「記言」, 남평의 책판은 「兵衛森」 등 각 1종씩뿐이다.

「完營册板目錄」은 필사본으로 영조 35년(1759) 2월에 조사하여 작성한 것이다.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함경도 등 각 도의 감영과 지방에 보존되어 있는 책판을 수록하였는데, 지명 아래에 서명, 册紙의 수량, 책판의 剝缺 상태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다. 나주조에는 「林白湖集」, 「左傳鈔評」, 「謹齋集」, 「記言集」, 「遲川集」, 「九雲夢」, 「戰國册」, 「三韻通考」, 「中庸」, 「心經諺解」 등이 수록되어 있고, 남평조에는 「兵衛森」, 「洪武正韻」, 「篆字」, 「野言」, 「中庸」, 「中庸諺解」, 「大學」, 「大學諺解」, 「論語大全」, 「讀語隨抄」, 「春種」, 「歸去來辭」 등이 수록되어 있다. 가장 많은 종의 책판이 수록되어 있다.

「嶺湖列邑所在册板目錄」은 필사본으로 영조 36년(1760)경에 작성되었는데, 경상도와 전라도의 책판목록이다. 남평의 책판은 기록되지 않고 나주의 책판만 기록되어 있다. 나주조에는 「或問大學」, 「心經」, 「白湖集」, 「李商隱集」, 「周易啓蒙」, 「春種」, 「遲川集」, 「心經諺解」, 「九雲夢」, 「左傳」 등이 수록되었는데, 「李商隱集」, 「周易啓蒙」은 여기에서만 나타난다.

「各道册板目錄」은 정조 2년(1778)년경에 편찬한 것으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교서관 등의 책판이 수록되어 있다. 서명, 册紙의 수량, 책판의 剝缺 상태를 기록하였다. 나주조에는 「記言」, 남평조에는 「兵衛森」이 수록되어 있다.

「古册板有處攷」은 숙종조에서 편찬된 『海東地志』의 내용 중 책판에 관한 기록만을 필사한 것인데,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황해도, 함경도의 책판을 수록하고 권말에 豹庵 姜世晷의 약력을 기록하였다. 나주의 「記言集」만이 수록되었다.

「鏤板考」는 正祖의 명에 의하여 1796년에 徐有榘가 편찬한 官撰 책판목록이다. 나주의 「記言」, 「記言別集」 2종만이 수록되어 있다.

「各道冊板目錄」은 憲宗 6년(1840)에 작성하였는데,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황해도, 함경도의 책판을 수록되었다. 서명, 완결여부, 용입지의 수량 등이 차례로 기록되었는데, 나주의 「雅頌」, 「朱書百選」, 「記言」 3종이 들어 있다. 「雅頌」, 「朱書百選」은 여기에만 수록되어 있는데, 정조조에서 초간된 이래 처음으로 책판목록에 수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지역은 읍지에 책판목록이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나주지역의 읍지 중 「나주목여지승람」²⁹⁾의 冊板條에는 『記言集』만 수록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한 책판목록 중 「完營冊板目錄」에서 가장 많은 22종 나타내고 있다. 책판목록에 나타난 서명 중 「記言」, 「記言別集」, 「記言集」, 「許眉叟集」은 동일한 책을 나타낸다. 책판목록에 나타난 서명을 전체적으로 조사하면 나주와 남평에서 총 27종이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조선 후기 책판목록에 수록된 나주의 책판

	冊板 置簿冊	三南所藏 冊板	諸道 冊板錄	完營 冊板目錄	嶺湖列邑所 在冊板目錄	各道 冊板 目錄	古冊板 有處攷	鏤板考	各道 冊板目錄
羅州	林白湖集 或問大學 遲川集 中庸 心經診解 三韻通考 許眉叟集		記言	林白湖集 左傳鈔評 謹齋集 記言集 遲川集 九雲夢 戰國冊* 三韻通考 中庸 心經診解	或問大學 心經 白湖集 李商隱集 周易啓蒙 春種 遲川集 心經診解 九雲夢 左傳	記言	記言集	記言 記言別集	雅頌 朱書百選 記言
南平	中庸 中庸診解 兵衛森 洪武正 野言 歸去來辭 論語大全 大學 大學診解	兵衛森	兵衛森	兵衛森 洪武正韻 篆字 野言 中庸 中庸診解 大學 大學診解 論語大全 讀語隨抄 春種 歸去來辭		兵衛森			

29) 羅州牧鄕土文化研究會, 『羅州牧邑誌』(羅州牧鄕土文化研究會, 1993), p.35.

4.2 간행서적과 서지적 특성

조선 후기에는 전기보다 현존본이 많이 남아 있어서 간행처를 기준으로 기술하였다. 나주 지역에서 간행된 서적으로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간본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1) 官版本

○ 『德陽遺稿』

己卯名賢 중의 한 사람인 奇遵(1492-1521)의 유고이다. 3권1책으로 된 목판본인데 “萬曆三十四年(1606)七月日羅州牧開刊”라는 간기가 있어 나주목에서 간행을 한 문집임을 알 수 있다.

○ 『千字文』

성암문고에 소장된 『천자문』에는 “皇明萬曆參拾壹(1603)年正月日通政大夫行羅州牧使謹誌”라는 발문이 들어 있다. 표제는 『草千字』이며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책판목록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 『薛文清公讀書錄』

薛瑄(1389-1464)의 독서록을 명나라의 吳廷舉가 발취하고, 조선의 鄭述(1543-1620)가 續選한 3卷1冊의 목활자본이다. 序題는 『讀書錄要語』, 『薛氏讀書錄』, 版心題는 『薛子錄』으로 되어 있다. “萬曆丁未(1607)秋七月戊戌後學西原鄭述謹序”와 “皇明天啓六年(1626)仲秋羅州牧活字刊”의 기록으로 인해 나주목에서 간행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에 들어 목활자로 찍은 가장 이른 印本이다.

2) 書院版本

○ 『記言』

眉叟 許穆의 시문집으로 모두 93권 25책이다. 현재 나주의 眉泉書院에 책판이 소장되어 있다. 대부분의 문집이 사후에 편찬되는 것과는 달리 미수의 『기언』은 그의 생존시인 顯宗8년(1667)에 이미 自序를 지어 놓았다. 侍讀官 李鳳徵이 허목의 문집을 간행할 것을 주청하자 숙종이 이를 간인토록 명하였던 일³⁰⁾이 있었으나 당시에 간행되지 못 하였다. 숙종 32년(1706) 겨울에 당시 미천서원의 院貳로 있던 洪重夏가 판각을 시작하여 추진하였으나 이듬해 봄 洪重夏가 세상을 떠나자 都事 權始經이 각 冊에 일을 分定하여 景宗 1년(1721)에 完刻하고 이듬해 교정을 보아 완성하였다.³¹⁾

30) 『肅宗實錄』 15年 3月 25日條.

31) 목포대학교박물관 편, 全南의 書院·祠宇-賜額書院·祠宇篇-(전라남도, 1988), p.99.

○ 羅州花巖書院榮建目錄

나주 화암서원의 영건목록인데, 1811년에 목활자로 간행하였다. 화암서원은 花巖祠라고도 하는데, 조선 숙종 때에 圃隱 鄭夢周, 陽山 金右生, 栢村 金文起를 배향한 곳이다. 판심제에는 「忠毅公書院榮建錄」이라고 되어 있는데, 忠毅公은 김문기의 시호이다. 계명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다.

3) 寺刹版本

조선시대 각 지역마다 사찰에서 간행한 서적이 많지만, 나주 지역에서는 1종만이 현전한다. 「錦城孝烈錄」은 1803년에 목활자로 多寶寺에서 인행하였다. 다보사는 661년에 설립되었으며 나주읍 경현리 629번지에 위치하고 금성산에 있다.

4) 校宮版本

○ 錦城三綱錄

高麗부터 朝鮮時代까지 금성(나주) 지역에서 忠, 孝, 烈의 三綱으로 이름을 남긴 사람들의 事蹟을 모은 책이다. 나주향교에서 편집하여 1802년에 목활자본으로 간행하였다. 나주향교는 태조7년(1398)에 건립되었다.

○ 錦城續三綱錄

「錦城三綱錄」을 이어 1893년에 나주향교에서 續修하여 간행하였다. 목활자본이고, 서문은 기우만이 쓰고 발문은 임병순이 썼다.

5) 私家版本

○ 「莎隱遺稿」

李珪緒의 문집이다. 3권1책으로 된 목활자본인데 간기에 '草洞：南坡亭'에서 간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南坡亭은 나주 다시면 영동리 초동부락에 있고, 함평이씨 李鐸憲이 1883년에 건립한 것이다. 즉, 저자의 고향에서 간행한 것이다.

○ 「萬曆四年丙子二月十六日司馬榜目」(丙子司馬榜目)

선조 9년(1576)에 시행된 생원 진사시의 합격자 명단을 수록한 방목이다. 표제는 「丙子司馬榜目」이다. 인조 24년(1646)에 목판본 1책으로 간행된 금성현감 宋時吉의 私刊本인데, 이 방목은 선조 9년(1576)에 초간하고 인조14년(1608)에 重刊하였으며 송시길이 三刊한 것이다. 그는 아버지 宋熙業이 광해군 9년(1617)에 금성현감에 부임하였고, 30여년 후인 인조 23년(1645)에 자신이 금성현감에 부임하여 1년이 되었으므로 聖恩에 부답하기 위하여 이 방목을 간행한다고 동기를 밝혔다.32)

비록 현감이 간행의 주체이지만 개인적인 목적으로 간행하였기 때문에 사가판본이라 할 수 있다.

○ 龜城公實記

조선 중기 무신 全尙毅의 실기이다. 1855년 전상의의 후손 全守良 등이 나주에서 목활자본으로 간행하였다. 권말에 “崇禎紀元後四乙卯二月日開刊于羅州南崗齋舍”라는 간기가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영남대학교 등에 소장되어 있다.

○ 錦溪集

魯認의 문집이다. 그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아 전투에 참가했다. 정유재란 때에 남원에서 왜군의 포로가 되었다가 귀국하였다. 7대손 노규가 편집하여 간행하였다. 권두에 명나라 神宗의 詔書가 있고, 유성룡과 조희일의 서문이 있다. 사후에 居平祠에 배향되었고 문집 또한 이 곳에서 1823년에 목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 1829년에 重刊하였고, 1955년에 三刊하였다.

○ 沙潭遺稿

조선 중기의 문신 羅德元의 시문집이다. 1898년 나덕원의 10세손 漢璿이 편집하여 간행하였다. 기우만의 서문과 저자의 自序가 권두에 있고, 권말에 나한선의 開刊記가 있다. 1898년에 나주의 追遠堂(“.. 刊訖仍○修輯于羅州松林追遠堂”)에서 목활자로 간행되었다. 추원당은 나주시 문평면 송산리 송림마을에 위치한, 나은제, 나옥, 나빈, 나겸, 나세찬을 모신 錦城羅氏의 사당이다.

○ 松川集

학포 양팽손의 아들이며 명종 때 대사성을 지낸 楊應鼎의 시문집이다. 효종 초 손자 양만용이 수집하고 현종 8년(1842)에 9대손 양찬영 등이 羅州 朝陽里舍에서 간행하였다.

○ 滄洲遺稿

나주의 松齋祠에 배향된 羅茂松(1577-1653)의 詩文集이다. 기우만이 쓴 遺事와 9세손 漢璿이 쓴 간기가 실려 있다. “..仍其鉞梓設始于羅州松林追遠堂”라는 간행기록이 있어서, 나주의 追遠堂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 虛白堂集

성종 때의 학자이며 문신인 虛白堂 成侃(1439-1504)의 시문집이다. 1842년에 목활자본으로 간행된 현전본이 영남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다. 조선전기의 책판목록에도 수록된 서적

32) 萬曆四年丙子二月十六日司馬榜目 識記.

중 『백호집』과 함께 후기까지 남아있는 서적이다.

○ 族譜(系譜類)

사가관으로 족보의 간행도 여러 중 이루어졌다. 『羅州羅氏族譜』는 1721년 羅斗秋 등이 간행하였는데, 간기에 “崇禎後再辛丑 羅州邑內 開刊”이라고 되어 있어서 나주읍내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利川徐氏族譜』는 南平 松隱齋에서 1809년에 목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 『咸平李氏族譜』는 粉土洞先朝墓閣에서 1896년에 목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 『海南金氏族譜』는 1898년에 思慕齋에서 석인본으로 간행되었다. 『慶州李氏世譜』는 1910년에 永慕閣에서 목활자본으로 간행하였다. 족보의 간행지는 나주읍내, 松隱齋, 粉土洞先朝墓閣, 思慕齋, 永慕閣 등 齋室이나 묘각 등으로 나타났다.

6) 坊刻本

현존본 금성판은 『九雲夢』과 『朱書百選』, 『左傳鈔評』 3종이다. 여러 선행연구³³⁾에서 나주의 방각본은 2종으로 알려졌는데, 자료수집과정에서 나주 午門에서 간행한 『좌전초평』을 새롭게 발견하였다.

○ 『九雲夢』

『구운몽』은 서포 김만중이 지은 한문 소설이다. 나주에서 방각본으로 간행된 『구운몽』은 목판본이며 상권 86과 하권 82장으로 이루어져있다. 권말에 “崇禎後再度乙巳”라는 刊記로 보아 영조 1년(1725)에 간행되었고, “錦城午門新刊”으로 보아 현재 나주의 남문(南門)이 간행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김만중이 沒한 지 30여 년만에 출간된 것이며, 『구운몽』의 印本 중 가장 古本이다.³⁴⁾

○ 『左傳鈔評』

明나라의 穆文熙가 批輯하고 石星이 校閱한 책인데, 고려대 소장본(만송 A5 A8A 1-5)은 明本을 번각한 목판본이다. 간기에 “崇禎後再度甲辰(1724) 錦城午門刊刻”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구운몽』과 같은 곳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 『(御定)朱書百選』

정조가 1794년에 朱熹의 서간문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00편을 모아 직접 엮은 책이다. 책이 완성되자 여러 신하들에게 반포하고, 또 호남·영남·관서의 감영에 명하여 飜刻하고 판본을 보

33) 천혜봉, 권희승, 이혜경 등은 전계서와 전계논문에서 금성판 방각본은 『구운몽』과 『주서백선』 2종이라고 언급하였다.

34) 정규복, 구운몽 연구(서울 : 보고사, 2010), p.425.

관하게 하였다.³⁵⁾ 정조는 또한 1799년에 『雅誦』을 편찬하여 詩 교육을 널리 보급하였다.³⁶⁾ 정조는 40대 이후 『주서백선』과 『아송』을 편찬하여 각 지방에 유포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주자의 학문을 존중하게 하고 교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고려대 소장본 『주서백선』의 간기에 “庚申(1800)錦城刊印”라고 되어 있어서 금성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7) 기타

『謹齋集』은 고려말의 문신인 安軸의 문집이다. 부록으로 ‘三先生世稿’(안축의 아들 안종원, 종원의 孫 안순, 순의 아들 안승선)가 들어 있는 四代의 문집인데 후손인 安慶運이 펴냈다. “崇禎紀元後庚申後月上澣...全羅道防禦使慶運再拜謹”라고 발문에 명시되어 있는데 안경운(1683-1749)의 생몰연대로 보면 庚申年은 1740이 된다.³⁷⁾ 또한 간기에 “庚申冬于濟州移藏板本於羅州”라고 되어 있어서 『근재집』은 제주에서 간행하고 책판을 나주로 옮겼음을 알 수 있다.

서예의 서법에 관한 책들도 있는데, 책판목록에 『兵衛森』, 『春種』, 『歸去來辭』 등이다. 실제로 『兵衛森』은 『雪菴書帖』으로 검색이 되는데, 元나라의 서예가인 雪菴 李溥光(1264-1307)의 글씨를 木刻하여 만든 서첩이다. 표제가 ‘兵衛森’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첫째 면에 나온 글자를 제목으로 삼은 것이다. 현존본에서는 『春種』은 『春種帖』으로, 『歸去來辭』는 『陶靖節歸去來辭』로 書名이 목록되어 있다.

임진왜란 이후부터 1910년까지 나주지역에서 목활자로 인행한 서적은 21종 있다. 먼저, 1626년 8월에 『薛文淸公讀書錄』을 찍은 ‘羅州字’라고 불리는 활자인데, 『설문청공독서록』의 권말에 “皇明天啓六年仲秋羅州牧活字刊”의 印記가 있다. 윤병태는 이 활자의 자형과 그 인행배경을 상세히 연구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그 글씨체는 갑인자계 필서체 목활자임을 밝히고 있다.³⁸⁾ 또한 私家에서 인행한 목활자본도 있다. 『송천집』, 『구성공실기』, 『창주유고』, 『사담유고』 등이 같은 목활자로 인행하였다.³⁹⁾ 18세기에 인행된 목활자본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19세기에 가장 많은 인본이 인행되었는데, 1802년에 『금성효충열록』과 『금성삼강록』, 1803년에 다보사에서 『금성효열록』, 1809년에 『이천서씨족보』, 1811년에 『나주화암서원영건목록』, 1823년에 『금계집』을, 1842년에 『송천집』, 『허백당집』, 1855년에 『귀성공실기』, 1870년에 『서흥김씨족보』, 1874년에 『석문집』, 1887년에 『파평윤씨삼강록』, 1893년에 나주향교에서 『금성속삼강록』, 1896년에 분토동선조묘각에서 『함평이씨족보』, 초동의 남과정에서 『사은유고』, 1897년에 『금성읍지』, 1898년에 추원당에서 『사담유고』와 『창주유고』, 사모재에서 『해남김씨족보』, 1900년에 『서산선생유고』, 1908년에 『지도군읍지』, 1910

35) 『正祖實錄』 18年 12月 25日條.

36) 『正祖實錄』 정조 대왕 行狀.

37) 윤봉택, 노기춘, 전개논문, pp.263.

38) 윤병태, “羅州牧 活字考,” 도서관 제30권, 제1호(1975. 1), pp.59-67.

39) 玉泳晷, “光州筆書體木活字와 印本 研究,” 書誌學研究, 제25집(2003. 6), pp.358-359.

년에 영모각에서 「경주이씨세고」를 펴냈다.

그밖에 간행처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八賢行錄」, 「南圃先生集」, 「錦城三稿」, 「逸翁文集」, 「滄溪先生集」 등은 편저자나 발문 작성자로 보아 나주에서 간행되었으리라고 추정하는 서적들이다.

〈표 3〉 조선 후기 나주에서 간행된 서적

分類	書名	編著者	刊行處	板種	刊行年	冊數	所藏處	
經	易類	周易啓蒙		木板本				
	春秋類	左傳鈔評	穆文熙(明) 批輯	午門	木板本	1724	12卷 6冊	고려대
	四書類	論語大全			木板本			
	四書類	大學			木板本			
	四書類	大學諺解			木板本			
	四書類	中庸			木板本			
	四書類	中庸諺解			木板本			
	四書類	或問大學			木板本			
	小學類	三韻通考			木板本			
	小學類	千字文	周興嗣(梁)	羅州牧	木板本	1606	1冊	성암문고
	小學類	洪武正韻	宋濂(明) 等		木板本			
	史	傳記類	龜城公實記	全守良	南尙齊舍	木活字本	1855	1卷 1冊
傳記類		錦城三綱錄	李寅采	錦城	木活字本	1802	3卷 2冊	전남대, 국중도
傳記類		錦城續三綱錄		羅州鄉校	木活字本	1893	3卷 2冊	국중도
傳記類		錦城孝烈錄		多寶寺	木活字本	1803	1冊	간송
傳記類		坡平尹氏三綱錄	尹憐圭		木活字本	1887	1冊	한중연
譜系類		慶州李氏世譜		永慕閣	木活字本	1910	2冊 (零本)	영남대
譜系類		羅州羅氏族譜	羅斗秋 等	羅州邑內	木板本	1721	2卷 2冊	계명대
譜系類		羅州羅氏族譜	羅基漢	羅州	新鉛活字本	1910	1冊	전남대
譜系類		瑞興金氏族譜	金秉燮 等	羅州	木活字本	1870	7卷 7冊	하바드대
譜系類		利川徐氏族譜：湖南	利川徐氏譜所	南平：松懸齋	木活字本	1809	7卷 7冊	국중도
譜系類		咸平李氏族譜	李敏錫	粉土洞先朝墓閣	木活字本	1896	26卷 19冊	한중연
譜系類		海南金氏族譜	金允澤	思慕齋	石印本	1898	5卷 5冊	하바드대
地理類		錦城邑誌	李麟相		木活字本	1897	3卷 2冊	고려대
地理類		羅州花巖書院 榮建日錄			木活字本	1811	3卷 1冊	계명대
地理類		智島郡邑誌	朴畿緒	羅州	木活字本	1908	1冊	전남대
政法類		萬曆四年丙子二月十六日司馬榜目	禮曹	[錦城縣]	木板本	1646	1冊	국중도, 녹우당
別史類		戰國冊			木板本			

子	儒家類	薛文清公讀書錄	薛瑄(明)	羅州牧	木活字本	1626	3卷 1冊	고려대
	儒家類	心經			木板本			
	儒家類	心經診解			木板本			
	儒家類	朱書百選	正祖 編	錦城	木板本	1800	6卷 2冊	고려대
	藝術類	陶靖節歸去來辭	韓濩 書	羅州	木板本		1冊	계명대
	藝術類	兵衛森	韋應物(唐)		木板本			
	藝術類	篆字			木板本			
	藝術類	春種帖	李溥光(元) 書	羅州	木板本	미상	1冊	계명대
集	別集類	謹齋先生集	安軸	濟州刊, 羅州冊版所藏	木板本	1740	1冊 (零本)	경북대
	別集類	錦溪集	魯認	錦溪院	木活字本	1823	8卷 2冊	한중연, 국중도
	別集類	錦南先生文集	崔溥	羅州	木板本	1725	5卷 2冊	한중연
	別集類	記言	許穆	眉泉書院	木板本	1689	95卷 21冊	고려대
	別集類	德陽遺稿	奇遵	羅州牧	木板本	1606	3卷 1冊	버클리대
	別集類	白湖集	林梯	羅州	木板本	1621	4卷 2冊	고려대
	別集類	沙潭遺稿	羅德元	追遠堂	木活字本	1898	2卷 1冊	영남대
	別集類	莎隱遺稿	李珪緒	草洞 : 南坡亭	木活字本	1896	3卷 1冊	성균관대
	別集類	西山遺稿	柳自湄	羅州	木活字本	1900	4卷 1冊	간송문고, 하바드대
	別集類	石門集	吳以翼	道林講堂	木活字本	1874	5卷 2冊	하바드대
	別集類	松川集	楊應鼎	朝陽里舍	木活字本	1842	7卷 3冊	고려대, 하바드대
	別集類	李商隱集	李商隱(唐)		木板本			청분실서목
	別集類	遲川先生集	崔鳴吉	羅州	木板本		17卷 7冊 (零本)	연세대
	別集類	滄洲遺稿	羅武松	追遠堂	木活字本	1898	2卷 1冊	영남대, 국중도
	別集類	澤堂先生集	李植	南平	木板本	1674	34卷 16冊	고려대
	別集類	虛白堂集	成倪		木活字本	1842	8冊	영남대, 성균관대
	小說類	九雲夢	金萬重	午門	木板本	1725	1冊	정규복
	楚辭類	雅頌	朱熹(宋), 正祖 御選		木板本	1799	8卷 2冊	전남대

조선 후기 나주 지역에서 간행된 서적 54종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경부(20.37%)에는 역류, 춘추류, 사서류, 소학류 등이 있으며, 사부(31.48%)에서는 전기류, 계보류, 지리류, 정법류, 별사류 등이 있고, 자부(16.66%)에는 유가류와 예술류가 있으며, 집부(31.48%)에는 별집류와 소설류가 있다. 사부와 집부의 서적이 많이 간행되었고, 류별로 보면 별집류(29.62%)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계보류(12.96%), 사서류(11.11%) 순이다. 즉 개인문집과 족보가 서적 중 가장 많이 간행된 것이다. 전기에는 유가류와 별집류가 가장 많이 간행되었는데 후기에는 유가류 대신 계보류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19세기 들어 관관본보다 문중이나 개인들이 조상의 문집과 족보를 많이 간행하였으며, 간행처는 주로 祠宇, 樓亭, 齋室, 私家 등이다. 간행된 서적은 후기에 간행된 서적이 양적으로는 많지만 전기보다 다양성면에서는 떨어진다. 의가류, 예류, 효경류, 총집류 등의 서적이 간행되지 않았다. 간행기록이 있는 34종 중 17세기에는 6종(17.64%), 18세기에는 5종(14.7%), 19세기에는 19종(55.88%), 20세기에는 4종(11.76%)으로 나타났다. 시기적으로 17세기와 18세기의 서적 간행활동이 16세기 보다 현저히 떨어졌다가 19세기에 들어 와서 가장 활발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관중을 살펴보면, 목판본 31종(57.4%), 목활자본 21종(38.88%), 석인본 1종, 신연활자본 1종으로 나타났다. 전기에 비해 목활자본의 간행이 활발해졌으며, 1898년에는 석인본이 처음 간행되었고, 1910년에 신연활자본이 처음 간행되었다.

V. 結 論

조선시대 나주에서 간행된 서적은 89종(전기:35종, 후기:54종)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간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은 52종(전기:18종, 후기:34종)이다. 주제별 분석은 89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시대별 분석은 간행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52종으로 국한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와 분석 결과 나주지역의 출판에 관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나주는 고려시대부터 목판본을 간행하였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중종 이후부터 서적간행 활동이 활발하였다.
2. 조선 전기에 나주에서는 자부에 속하는 서적을 가장 많이 간행하였고 그 중에서도 유가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존본을 통해 살펴 본 나주 지역의 간행의 주체나 동기는 왕명에 의해 서적을 반포하는 경우와 관찰사나 목사 등 지방의 관리들에 의해, 그리고 개인이 조상의 문집이나 족보 등을 간행하는 경우들이다. 특히 16세기에 나주목사였던 학봉 김성일에 의해 많은 서적이 간행되었다.
3. 조선 후기에 나주에서는 사부와 집부의 서적이 많이 간행되었고, 그 중에서 별집류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계보류, 사서류 순이다. 특히 19세기 들어 관관본보다 문중이나 개인들이 조상의

문집과 족보를 많이 간행하였으며, 간행처는 주로 祠宇, 樓亭, 齋室, 私家 등이다. 시기적으로 17세기와 18세기의 서적 간행활동이 16세기 보다 현저히 떨어졌다가 19세기에 들어 와서 점차 활발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판종을 살펴보면, 목판본과 목활자본이 가장 많고 전기에 비해 목활자본의 간행이 활발해졌으며 1898년에는 석인본이 처음 간행되었고 1910년에 신연활자본이 처음 간행되었다.

4. 조선 전기에는 유가류의 비중이 높았는데, 후기에는 별집류와 계보류의 비중이 가장 높다. 후기로 갈수록 개인의 주도로 간행된 서적이 많아졌으며, 주제의 다양성면에서 전기보다 간소화된 모습을 보인다. 후기에 들어 목활자본의 간행이 활발해졌으며, 방각본이 3종 간행되었다. 그동안 나주에서 간행된 방각본은 2종으로 알려졌는데, 자료수집과정에서 나주 午門에서 간행한 『左傳鈔評』을 새롭게 발견하였다.

자료를 수집하면서 느낀 어려움은 간행기록이 확실하지 않은 서적이 상당 수 있는 점이다. 앞으로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의 저작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나 상당 부분 필사본으로 남아 있어서 간행된 서적으로만 당시의 서적문화를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 또한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1. 原典

錦城邑誌(1897).
朝鮮王朝實錄.

2. 單行本

고봉학술원 편저. 고봉 기대승 연구. 대전 : 도서출판 이화, 2009.
羅州牧鄉土文化硏究會. 羅州牧邑誌. 羅州牧鄉土文化硏究會, 1993.
羅州牧鄉土文化硏究會. 牧鄉 IV. 羅州牧鄉土文化硏究會, 2010.
목포대학박물관 편. 全南의 書院·祠宇-賜額書院·祠宇篇-. 전라남도, 1988.
목포대학박물관 편. 全南의 書院·祠宇II. 전라남도, 1990.
송일기. 全南 書院의 木板. 광주 : 전남대학교문헌정보연구소, 1998.
윤병태 편. 韓國書誌年表. 서울 : 도서관협회, 1972.
정규복. 구운몽 연구. 서울 : 보고서, 2010.
정형우, 윤병태 편. 韓國의 冊板目錄. 서울: 보경문화사, 1995.
전혜봉. 한국서지학. 서울 : 민음사, 2006.

천혜봉. 日本 蓬左文庫 韓國典籍. 서울 : 지식산업사, 2003.

鶴峯金先生紀念事業會 편. 鶴峯의 學問과 救國活動. 서울 : 鶴峯金先生紀念事業會, 1993.

3. 論文

권희승. 湖南坊刻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81.

김삼기. 조선후기 製紙手工業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3.

金致雨. 攷事撮要의 書誌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72.

옥영정. 湖南地方 木活字本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2.

이혜경. 朝鮮朝 坊刻本の 書誌學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99.

최지선. 조선시대 호남관찰영본에 관한 서지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7.

강혜영. “남원지역 인쇄문화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32집(2005. 12), pp.5-34.

김성수. “충청감영(忠淸監營)과 청주목(淸州牧)의 간행도서에 관한 분석.” 書誌學研究, 제45집(2010. 6), pp.33-63.

남권희. “제주도 간행의 서적과 기록류.” 古印刷文化, 제8집(2001), pp.219-252.

박문열. “충청지역의 출판문화에 관한 연구.” 국제문화연구, 15권(1997), pp.155-183.

손계영. “조선후기 책판의 간행공간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第49집(2011. 9), pp.359-388.

沈慶昊. “錦城開刊 『溪山雜詠』과 庚子本 『退溪文集』의 간행경위에 대한 일 고찰.” 書誌學報 第19호(1997)

안현주.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전 전라도의 서적출판에 관한 고찰.” 書誌學研究, 제46집(2010. 9), pp.159-198.

玉泳畧. “조선시대 完營의 인쇄문화에 관한 고찰.” 書誌學研究, 제50집(2011. 12), pp.433-470.

玉泳畧. “光州筆書體木活字와 印本 研究.” 書誌學研究, 제25집(2003. 6), pp.341-368.

윤봉택·노기춘. “제주목에서 개간된 17세기 책판 연구.” 書誌學研究, 제34집(2006. 9), pp.251-271.

윤상기. “경남 함양군의 서원판본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32집(2005. 12), pp.237-271.

임기영. “청도의 전적 인쇄 문화 연구.” 書誌學研究, 제50집(2011. 12), pp.113-160.

정승모. “書院·祠宇 및 鄉校 組織과 地域社會體系(下).” 泰東古典研究, 제5권(1989), pp.137-179.

4. 전자자료

나주시청 홈페이지. <<http://tour.naju.go.kr/home/tour/history>> [인용 2012년 2월 5일].

한국고전적중합목록시스템. <<http://www.nl.go.kr/korcis/>> [인용 2012년 2월 18일].